나주 혁신도시~부산 2시간에 간다…2030년 철도 개통

‘광주 송정~순천 철도’ 혁신도시역 신설…광역교통망 중심 급부상
남해안선벨트 구축으로 경제·문화·관광 활성화 지역민 기대감 ‘쑥’

오는 2030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부산까지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나주가 광역교통망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철도공단의 ‘광주송정~순천 간 철도건설사업’(2023~2030년)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역(가칭)이 신설될 계획이다.

역 신설에 따라 개통 예상 시점인 2030년 하반기엔 나주 혁신도시역에서 기차를 타면 평균 소요시간보다 2시간 단축한 2시간 안에 부산역에 도착하게 된다.

광주송정~순천 철도사업은 총사업비 2조1366억원을 투입해 광주역에서 출발해 광주송정역에서 나주(빛가람) 혁신도시를 거쳐 순천역까지 총연장 121.5㎞ 구간 선로를 신설·개량화하는 사업이다.

확정된 노선은 ‘광주역-광주송정역-나주혁신도시역(신설)-보성역-벌교역-순천역이다. 총구간 중 89.2㎞는 단선 전철로 신설하고 나머지 32.3㎞는 기존 선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경전선의 비전철 구간이었던 광주 송정에서 나주, 순천 간 전철화 등 고속화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지역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이용객 편의는 물론 영호남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나주시 측은 기대했다.

광주역에서 순천역까지는 기존 소요 시간인 152분에서 도착까지 52분으로 1시간 40분이 단축된다. 광주역에서 종점인 부전역까진 기존 5시간 50분에서 3시간 28분이 단축된 2시간 21분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있다.

혁신도시에 기차역 신설이 확정되면서 혁신도시 산·학·연 집적단지,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야 인적·물적 네트워크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남해안 선벨트 구축에 따른 경제·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오는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공사를 착수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전남 서부권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으로는 나주에서 부산 지역까지 최소 3시간 30분에서 4시간이 넘게 걸린다.

고속버스의 경우 나주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1시간 30분가량 이동해 부산행 버스를 타면 부산종합버스터미널까지 총 4시간 40분이 소요된다.

나주시외버스터미널 또는 나주혁신도시 임시정류소에서 급행버스를 이용하면 약 3시간 40분에서 4시간 사이에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고속열차는 KTX 나주역에서 익산역과 오송역에서 2차례 갈아타 부산역까지 약 3시간 40분에서 4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보고서에 실린 경전선 노선. 〈국가철도공단 제공〉

나주시 관계자는 “전남 서부권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해온 나주시가 국가철도망 사업을 통해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중심지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 2028년까지 ‘청년정책’ 5대 핵심 분야 추진

5개년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 열어
청년마을 조성·만원주택 등 논의

장흥군이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복지·문화, 일자리, 교육, 주거, 참여·권리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장흥군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장흥군 청년발전위원회와 청년발전협의체 위원, 지역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년정책은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장흥군은 청년현황 실태조사를 벌여 복지·문화, 일자리, 교육, 주거, 참여·권리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청년정책을 세울 방침이다.

장흥군 4개년 청년정책과 국내외 청년정책을 비교·분석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낼 예정이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제안받은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본에 이를 반영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만원주택 지원’ ‘청년 창업교육 확대’ ‘청년 일자리 사업 증대’ 등 의견이 나왔다.

장흥군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중간 보고회와 함께 이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위·수탁 협약식도 함께 열렸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의 지역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장흥군이 개최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와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청년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안을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장흥군 신활력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대표 배권세)이 사업을 추진한다.

신활력플러스 협동조합은 앞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창업 교육, 자원 조사, 선진 사례 검토, 시제품 제작, 성과 공유회, 사후관리까지 총괄한다.

장흥군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공감 에움’, ‘힐링트리’ 등 2개 공동체를 올해 지원했다.

성과 공유회는 각 공동체가 올해 추진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화공감 에움은 용산 마실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귀농귀촌인,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체험, 장터,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힐링트리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엽 식물, 다육식물을 이용한 힐링원예교실과 미니정원 만들기, 텃밭요리교실 등의 마을공방 교육을 운영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며 “청년창업 교육, 일자리 지원, 신혼부부 지원 등의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머니 품 장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낙지 8800마리 방류

함평만 인공산란장 10곳에…서식 밀도 78% 증가 효과

함평군은 지난 10~11일 함평만 해역에 낙지 8800마리를 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지난 6월 낙지 1만4000마리 방류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방류이다.

함평군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와 함께 함평만 일대에 조성한 인공산란장 10곳에 낙지 산란·방류 작업을 지역 어촌계와 실시했다.

방류된 어미 낙지는 내년 봄에 1마리당 100~160개의 알을 산란하게 된다.

함평군이 산란장 조성 사업 효과를 조사해보니 지난해 함평만 해역 낙지 서식 밀도는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위판량은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은 지속해서 자원량 변화와 효과를 조사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 자원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함평만 일원에서 낙지 방류 작업을 하는 모습. 〈함평군 제공〉

이상익 함평군수는 “낙지를 지속해서 방류해 어업인 소득도 증대하고 갯벌 생태계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성군 ‘토지 분쟁 해소’…내년 지적재조사 4곳 확정

장성군이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로 인한 각종 분쟁을 예방하고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내년 사업대상지는 동화남산1지구, 삼서수해지구, 북이백암지구, 북이오월2지구 등 4곳에 면적은 총 1500필지, 71만6054㎡다.

장성군은 해당 4개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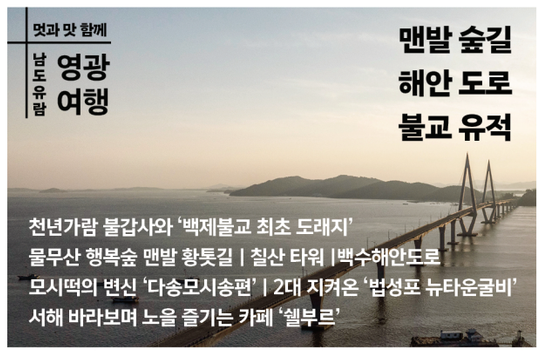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2월호

2023년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구멍가게가 사라진다
- 추억의 박물관 구멍가게, 우리 곁에 온기로 머물러 주길
- 거기 늘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동네 구멍가게’
- 그리움의 풍경, 책과 영화로 만나다



화제의 문화 현장
호남이 낳은 국민가수 고흥 ‘남진 트로트기념관’ 개관

송년 기획 – 2023 문화계 결산
코로나팬데믹 통과한 예술의 체취 더 진했다

예향 초대석
40년 동학연구 한길, 역사학자 박맹수
“대한민국 대전환, 동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기획- 新전남관광여지도⑦
한해 마무리는 전남에서 전남 해넘이 명소

특별기획-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⑦
대한민국 맛의 수도, 목포 평화광장, ‘맛의 거리’ ‘연인의 거리’

화제의 전시-황영성 초대전
전남도립미술관 ‘우주가족 이야기’전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①
조각 빚다 흙에서 새싹 난 작품 국전서 ‘대통령상’, 조각가 박병욱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③
감각 깨우는 미술관들 예술 힐링 여행지 강원도 강릉&양구

호남의 누정⑥ 광주 관덕정
‘활쏘기’로 덕행 살피는 심신수련의 전통 공간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⑫
돈·권력과 ‘삼위일체’ 마약, 영화와 세상을 중독시키다